

새 세기 미국의 미사일방위체계수립책동의 위험성

김영광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지금 미국은 우리 나라를 비롯한 일부 나라들의 그 무슨 〈미사일위협〉을 들고나오면서 미사일방위체계를 세우려고 시도하고있으며 이를 위해 로씨야와 맺은 요격미사일제한조약을 파기하려 하고있는것으로 알고있습니다.》

미국의 미사일방위체계수립시도는 새로운 군비경쟁을 초래할수 있는것으로 하여 오늘 세계적인 비난의 대상으로 되고있습니다.》(《김정일선집》 증보판 제21권 21페이지)

새 세기에 들어와 미국은 세계제패의 한 고리로서 미사일방위체계수립책동을 더욱 악랄하게 감행하고있다.

미국은 우리 나라를 비롯한 일부 나라들의 《미사일위협》에 대처한다는 미명밑에 미사일방위체계수립을 본토와 해외에서의 지역별미사일방위체계수립으로 나누어 추진하였다.

미국은 이미 본토에서 지상기지미사일방위체계의 수립계획을 두 단계로 나누어 추진하였다.

미국은 첫번째 단계에서 2005년까지 알라스카에 100기의 지상발사요격미사일과 그것들을 유도하기 위한 1개의 레이다를 설치하였으며 두번째 단계에서 2011년까지 요격미사일기지와 요격미사일들, 그것들을 유도하기 위한 여러개의 레이다를 추가적으로 설치하였다.

미국은 로씨야와 맺은 모든 이동식요격미사일체계의 개발과 시험, 배비를 금지한 요격미사일제한조약을 파기해버린 후 지상과 공중, 해상과 우주의 포괄적인 공간에서 탄도미사일을 비행의 전행정에서 파괴하는 다층요격체계의 배비계획을 추진하고있다. 결과 미사일을 대기권밖에서 요격하는 해군의 《스탠다드-3》체계와 대기권안에서 요격하는 육군의 《짜드》체계, 《패트리오트-3》요격미사일체계, 지상기지대륙간탄도미사일요격체계가 개발, 배비되고있다.

미국은 유럽과 아시아에서도 미사일방위체계를 구축하고있다.

미국이 미사일방위체계를 구축하려는 목적은 로씨야를 군사적으로 압박, 견제하고 유럽동맹지역에 대한 군사적통제를 강화하기 위한데 있으며 중동지배전략실현에서 방해로 되고있는 이란을 위협공갈하는 한편 동유럽나라들과 소련에서 독립한 나라들을 자기의 지배밑에 끌어들이기 위한데 있다. 이와 함께 미국의 알라스카와 캘리포니아, 일본의 미사일방위체계, 영국과 그린랜드의 전파탐지소 등을 하나로 련결시키는 전 지구적인 미사일방위체계를 구축하여 절대적인 군사적우위를 차지하며 세계에 대한 정치군사적지배권을 확립하기 위한데 있다.

오늘 미국의 미사일방위체계수립책동은 그 침략적목적과 위험성으로 하여 여러 나라들의 강한 반발을 불러일으키고있다.

새 세기 미국의 미사일방위체계수립책동의 위험성은 무엇보다먼저 《미사일위협》의 간판밑에 우리 공화국을 군사적으로 압박하여 완전히 말살하려 한다는데 있다.

우리 공화국의 미사일개발은 순수 평화적성격을 띤것이며 그것을 추진하는것은 우리 공화국의 당당한 자주적권리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국이 우리 공화국의 《미사일위협》

에 대하여 떠드는것은 완전히 무근거한것이며 저들의 지배주의적속심을 가리우기 위한 꾀변에 지나지 않는다.

미국은 우리 공화국의 당당한 자주적권리행사를 《장거리미싸일발사》, 《미싸일위협》으로 몰아붙이면서 우리 공화국을 압살하기 위한 공간으로 리용하려고 악랄하게 책동하고있다.

미국은 2009년 4월 14일 유엔안전보장리사회에서 우리의 인공지구위성 《광명성-2》호발사를 비난하는 강도적인 《의장성명》이라는것을 발표하였으며 2012년 4월 《광명성-3》호발사를 《장거리미싸일발사》로 몰아붙이기 위하여 유엔안전보장리사회에서 평화적위성발사를 《규탄》하는 《의장성명》을 강압채택하였다.

미국은 우리 공화국이 2012년 12월 12일 《광명성-3》호 2호기를 성과적으로 발사하였을 때에도 우리의 평화적인 위성발사를 《장거리미싸일발사》로, 유엔《결의》에 대한 《란폭한 파기행위》로, 세계의 평화와 안전에 대한 《엄중한 도전》으로 매도하면서 그것을 여론화해오던 끝에 2013년 1월 22일 또다시 우리에게 대한 새로운 《제재》를 들고나왔다.

미국은 2015년 5월에도 우리 전략잠수함의 탄도탄수중발사시험을 두고 《미싸일위협》, 국제사회에 대한 《엄중한 도발》, 유엔안전보장리사회《결의》에 대한 《위반》이라고 악랄하게 걸고들었다. 이것은 우리 공화국의 자주권에 대한 란폭한 침해행위이며 우리를 기어이 말살하려는 미국의 침략적본성은 절대로 변하지 않았다는것을 잘 보여주고있다.

미국은 우리 공화국의 당당한 자주적권리행사를 《미싸일위협》으로 《국제화》하면서 여론을 오도하는 한편 우리 공화국을 반대하는 미싸일방위체계수립책동에 열을 올리고있다.

미국은 이미 아시아에서 미싸일방위체계를 공동으로 개발, 전개할 첫 동맹국으로서 일본을 지목하고 1990년대초부터 일본과 기초적인 준비를 해왔다. 1998년 우리의 인공지구위성발사를 계기로 일본과의 미싸일방위체계의 공동기술연구를 진행하기로 합의하였으며 1999년 이에 관한 문서를 정식 교환하고 공동기술연구를 시작하였다. 미국과 일본은 5~6년간의 공동기술연구를 거쳐 일본해상《자위대》의 이지스구축함들을 발사기지로 하는 《스탠다드-3》미싸일방위체계를 공동으로 개발, 배비하였다. 일본은 미국의 《패트리오트》요격미싸일체계도 구입, 배비하였다.

2012년 6월 중순 미국과 남조선호전광들은 미싸일방위체계와 관련한 협조를 강화하기로 합의하였다. 그리고 대만과 인디아 특히 오스트랄리아도 저들의 미싸일방위체계에 끌어들임으로써 아시아미싸일방위체계구축을 다그치고있다.

미국은 2013년부터 2019년까지 X밴드레이다와 48개의 요격미싸일로 구성된 고고도 미싸일방위체계인 《싸드》 7개 포대를 실전배치하기 위한 계획을 추진하고있으며 2013년 괌도에 알파포대를 처음으로 배치한데 이어 2015년말까지 텍사스주의 포트 브리스 등 미국본토에 3개 포대의 실전배치를 완료하려 하고있다. 특히 추가로 생산중인 3~4개 포대를 앞으로 남조선 등에 배치하려고 하고있다.

《싸드》는 리론적으로 대기권밖에서 비행하는 미싸일에 대해서도 요격이 가능한것으로 되어있지만 실천적으로는 대기권안으로 다시 들어와 목표를 향해 고속으로 날아오는 미싸일을 요격하는 체계로 알려져있었다.

미국은 《싸드》의 이러한 요격체계구조를 새롭게 바꾸어 대기권밖에서 《적》의 극초음

속미싸일을 완전히 요격할수 있도록 사거리를 대폭 늘이고있다. 이렇게 함으로써 미국은 극초음속미싸일에 의한 타격도 막을수 있는 미싸일방위체계를 수립해보려고 하고있다.

이 모든것은 미국의 미싸일방위체계수립책동이 우리를 첫째가는 목표로 삼고있으며 우리 공화국을 군사적으로 제압하기 위한 반공화국압살책동이라는것을 잘 보여주고있다.

새 세기 미국의 미싸일방위체계수립책동의 위험성은 다음으로 새로운 군비경쟁을 야기시켜 세계의 평화와 안전을 엄중히 위협한다는데 있다.

미국이 미싸일방위체계를 수립하려고 하는것은 지구상에서 확고한 전략적우세를 차지하고 세계를 제패하자는것이다.

미국은 이러한 기도를 실현하는데서 장애물로 되고있는 1972년의 요격미싸일제한조약을 파기하는데 달라붙었다.

요격미싸일제한조약은 당시 쏘미쌍방이 각기 자기 나라 령토에 마음대로 미싸일방위체계를 구축하고 전개하는것을 금지하였으며 쌍방의 핵무력균형을 유지하기 위해 어느 일방도 전면적인 국가전략미싸일방위체계를 구축하는것을 금지하였다.

그러므로 지금까지 요격미싸일제한조약은 《세계적인 안정의 초석》으로 간주되어왔다. 그것은 조약이 체결된 1972년이래 32개의 기타 협정, 조약이 나오고 이에 기초하여 무기통제 및 군축틀거리가 세워져 안보구도가 형성되었기때문이다.

부쉬2세 행정부는 취임직후부터 랭전시대의 이러한 안보구도가 불필요하다고 하면서 어떻게 해서라도 랭전시기 쏘미가 구축하였던 무기통제 및 군축틀거리를 해소하려고 책동하였다.

그 근거는 9.11사건이 보여준것처럼 21세기에는 테로그루빠들과 《대량살상무기를 보유한 불량배국가들》이 세계의 안전에 위협으로 되기때문에 이에 대처할수 있는 새로운 안보구도를 세워야 한다는것이였다. 여기에서 새로운 안보구도란 미국의 전략적세계제패구도를 의미하며 그 기동은 미싸일방위체계이다.

미국은 저들이 추구하는 미싸일방위체계의 수립을 위하여 2001년 5월까지 로씨야와 전략적안보대화를 벌려왔으나 2002년 6월 13일 대통령의 특별서면성명을 통하여 요격미싸일제한조약에서 정식 탈퇴한다고 선포하였다. 이로써 기존무기통제 및 군축틀거리는 사실상 밀뿌리까지 뒤흔들려 파괴되었으며 미국은 아무런 장애없이 새로운 세계제패구도를 내올수 있는 조건을 마련하였다.

미국은 요격미싸일제한조약을 파기해버린 다음 미싸일방위체계수립책동에 집요하게 매여달리였다.

미국의 미싸일방위체계수립책동의 강행은 세계의 전략적안정을 심히 파괴하고 평화와 안전을 위협하는것으로서 여러 나라들의 강한 반발을 불러일으키고있다.

유럽동맹은 미국의 미싸일방위체계수립책동을 반대하면서 탄도미싸일전파와 관련하여 미싸일기술통제제도에 가입한 나라들의 발기에 기초한 공동의 립장을 시급히 취함으로써 지구적 및 다무적규모에서 대처할것을 제안하였다.

로씨야도 미국의 미싸일방위체계가 자기 나라를 겨냥하고있다고 하면서 미국의 미싸일방위체계를 뚫고 공격할수 있는 신형전략무기개발과 배비를 적극 추진하는 한편 세계 각지에서 안보상우세를 차지하기 위해 움직이고있다.

특히 로씨야는 자기 나라의 전략적공간을 압축하려는 미국의 움직임에 대응하여 독

립국가협동체나라들과 아시아뿐만아니라 지어는 미국과 린접한 라틴아메리카지역에로의 군사적진출을 강화하고있다.

로씨야는 쿠바, 베네수엘라 등 라틴아메리카지역의 반미적인 나라들에 자국의 전략폭격기들을 임의의 시각에 착륙시키기 위한 사업들을 추진시키고있다. 로씨야는 미국본토전역을 감시권안에 둘수 있는 전파탐지기지를 쿠바에 설치하는것과 함께 베네수엘라에 미국본토에로의 타격이 가능한 장거리폭격기배비를 계획하고있다.

실제적으로 로씨야는 라틴아메리카나라들과의 군사관계를 중시하고 이 나라들과 정기적인 합동군사훈련을 진행하고있다.

미국의 미싸일방위체계수립책동과 관련하여 상해협조기구성원국들도 대응해나가고있다.

상해협조기구는 아프가니스탄을 기구의 읍써버로, 튀르키예를 대화동반자국으로 받아들이는 등 기구확대조치를 강구하였는가 하면 기구성원국 무력의 합동군사훈련을 정기적으로 실시하고있다. 특히 미국의 일방적인 미싸일방위체계전개를 반대하는 내용을 기구수뇌자회의선언에 포함시키고 강력히 대응해나가고있다.

우리는 새 세기 미국의 미싸일방위체계수립책동의 위험성을 똑똑히 알고 선군의 위력으로 단호히 짓부셔버림으로써 조선반도와 세계의 평화와 안전을 보장하기 위하여 적극 투쟁하여야 할것이다.